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9월 30일 (다섯째 주일)

성경본문 : 행21장 7-14절

설교제목 : “성령이 말씀하시되”

우리는 지난 시간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이 진짜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의 목적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과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교회의 일에 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은 정작 주님과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겉으로는 은혜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도,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앎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관하여는 알 수 있어도, 결코 예수님을 깊이, 풍성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풍성히 알고 계십니까? 결국 성령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만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를 떠나 오랜 항해를 다 마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속한 **돌레마이**에 도착하였습니다.(7절) 그리고 바울 일행은 **돌레마이**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 교제하고, 하루를 머무르게 됩니다.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머물렀던 바울 일행은 다시 이튿날 떠나, 이틀거리가 되는 **가이사랴**에 이르러 전도사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8절) 전도사 빌립에게는 처녀로 예언하는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9절) 그런데 바울이 머물고 있던 빌립의 집에 유대로부터 **아가보**란 선지자가 내려 왔습니다.(10절) 아가보는 사도행전 11:28에 보면,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실제로 주후 46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치하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 띠를 가져오게 하여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했습니다. 그 당시 허리띠는 짧은 가죽띠가 아니라, 긴 천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이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했습니다.(11절) 아가보의 예언은 분명하게 성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아가보를 통해 성령의 말씀을 들은 바울의 동료들과 빌립의 집안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계속 거듭 만류했습니다.(12절) 이들의 거듭된 만류는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바울의 고난을 관망만 할 수 없었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한편 바울의 각오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결박과 투옥을 넘어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13절) 사실, 성령께서 아가보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금지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앞으로 있을 투옥의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바울을 이러한 성령님의 되풀이 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환난과 결박으로 자신을 보호하시려는 주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행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성령님의 되풀이되는 말씀과 사랑하는 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흔들림없이 예루살렘행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결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결단한 이유를 다른 시각에서 엿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힌트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1절은 성령께서 아가보를 통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20:17-19절입니다. **마20:17-19**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박게 할 것이나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19절에서 ‘넘겨주어’에 해당하는 ‘파라도수신’과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에서 ‘**넘겨주리라**’는 단어가 완전히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바울이 성령께서 아가보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회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은 바울의 심령이 매순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았다면 결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도 예수님처럼 이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야 하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결단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의 심령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예수님으로 채워졌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듣고 보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성숙과 헌신의 정도 역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가에 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사역은 자연스럽게 열매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할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과 성숙 곧 성화를 위해 부름받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사명과 성숙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다른 것이 모두 열리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이르러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빌립은 어떤 인물인지 이야기 해봅시다.
- 2) 성령께서 아가보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고도 바울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 행을 결단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 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